
응급실로 내원한 폐쇄성 황달 환자에서 CT Fluoroscopy 유도 PTBD의 유용성

건양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

박효순, 배석환, 정창민, 고경남, 박연태

목 적 : 응급실로 내원한 폐쇄성 황달 환자에서 CT 검사 후 CT fluoroscopy 유도 하에 바로 담도배액술을 시행하는 방법의 기술적 가능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응급실로 내원하여 임상검사에서 폐쇄성 황달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들은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복부 CT를 시행하였거나 바로 복부 CT를 시행하였으며 이들 중 간내담관의 확장이 4 mm 이상 되어 있으며 호흡조절이 가능하고 시술자와 협조가 가능한 12명의 환자에서 CT 검사 후 CT fluoroscopy 유도 하에 CT실에서 바로 PTBD를 시행하였다. CT는 somatom plus 4 unit(Siemens medical system, Forchheim, Germany)에서 시행하였고 CT fluoroscopy는 초당 6 frame으로 80~90 kVp, 75 mAs, 8 mm thickness 조건으로 시행하였다. CT 검사에서 천자할 간 내 담관 부위를 선택하고 PTBD에서 와이어와 카테터가 들어갈 단면에서의 담도 위치를 확인한 뒤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술부위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고 PTBD를 시술하였다.

결 과 : 12명의 환자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시술이 완료되었다. 담도 천자는 11명에서는 한 번에 이루어졌고 1명에서는 2번에 이루어졌다. 9명에서는 간 좌엽을 통해서 PTBD를 시행하였고 3명에서는 간 우엽을 통해서 시행하였는데 좌엽을 통한 경우가 더 편하고 빠르게 시술을 할 수 있었다. 시술 시 조영제를 담도에 넣지 않는 것이 넣는 것 보다 시술을 하기에 더 편했고 시술 도중 및 완료 후 와이어와 카테터의 위치는 CT topography로 확인 가능하였다. 시술 다음 날 tubography로 확인한 결과 카테터가 전례에서 적절한 위치에 삽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.

결 론 : 시술 공간 및 담도의 전체적 투시에 대한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혈관조영실로 옮기지 않고 바로 PTBD를 시행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에 있어서 절감이 가능하고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